

300자로 **hiphot** 섭취하는 **스낵뉴스**



KIA타이거즈 외야수 최형우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지명타자 부문 골든글러브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치 표현’ 야구는 되고 축구는 안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다. 그래도 우리 야구 팬분들은 선수들 플레이할 때만큼은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명타자 부문 골든글러브를 거머쥔 KIA타이거즈 외야수 최형우의 수상 소감이 화제다. 최형우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이와 같은 말을 남겼다.

팬들은 최형우의 소신 발언에 놀란 눈치다. 그동안 체육계에서는 정치 관련 의사 표현이 일종의 불문율로 여겨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도 프로 스포츠에서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최형우가 이 벽을 허물었다.

최형우의 소신 발언이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지에 대한 팬들의 걱정도 나왔다. 실제로 축구계에서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다. 결론적으로 야구계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최형우의 소신 발언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

KBO 규정에는 품위 유지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으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조항은 없다. 품위 위반 사항은 범죄, 병역 비리, 종교 및 인종 및 성차별, 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도박, 도핑, 학교 폭력 및 인권 침해 관련 부적절 대응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 헬멧과 모자 등에 지나친 개인 편향 표현 및 특정 종교 표식을 금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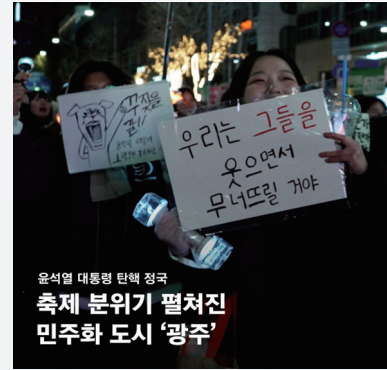
다만 축구계였다면 문제가 된다. 최상위 기관인 FIFA의 규정에 따라 아시아축구연맹(AFC)과 한국프로 축구연맹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K리그 역시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징계가 이뤄진 사례도 있다. 2019년 경남FC는 홈경기장인 창원축구센터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장내 선거 유세를 막지 못해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유일한 징계 사례이긴 하나 선거철마다 전 구단이 긴장하는 이유이다.

#SnackNews #스포츠정치표현 #한규민기자 #박지은편집자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축제 분위기 펼쳐진 민주화 도시 '광주'



'14일 오후 7시24분' 대통령 권한정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4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3만명의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자 일제히 환호했다. 지인들과 가족들을 끌어안으며 기쁨을 만끽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박서윤(16)양은 “(게임이라는) 2024년에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났는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한국사 책을 들고 집회에 참여했다. 차별받는 시민들이 없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지난 14일 오후 7시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 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등이다. 다만 대통령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호 및 의전에 대한 예우는 변동이 없다. 공무원 보수 규정상 대통령 보수인 2억5493만3000원의 월급도 계속 받는다.



지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북한, 남측계엄 '첫 보도' 차분한 논조 이유는?

자녀 입시 비리 공모 혐의를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대선 등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지난 2019년 기소된 조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 선고를 경허히 받아들인다. 저는 잠깐 멈추지만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묵했던 북한이 지난 11일 관련 첫 보도를 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측 탄핵 집회 사진 21장을 보이며 “심각한 통치위기, 탄핵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이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고 보도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 해체 요구안 가결 후 6시간만 해제, 7일 탄핵안이 불성립했다는 것까지 설명했는데, 이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비탄 일색이던 기조와는 다른 태도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